



슈발리에, 그의 시대에..

슈발리에 신부님의 삶 : 줄 슈발리에에는 예수 성심에 대한 성서적, 신앙적 측면을 신학적으로 더 깊이 연구하면서 자신이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받았으며, 세상 창조 이전부터 은총으로 선택되었고, 구체적이고 무한한 사랑, 즉 하느님의 선물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이 발견은 하느님에 대한 그의 비전과 삶의 방식, 그리고 그분을 느끼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사랑은 사랑으로 갚는다'는 옛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강인하고 열정적이며 꾸준하고 근면한 성격으로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일치를 이끌어 내며, 두 사람 사이의 소통 없이, 상호 경청 없이, 인격적인 대화 없이, 상대방에 대한 개방성 없이는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는 "나는 내 연인의 것, 내 연인은 나의 것"(아가서 6:3)라는 성경 구절을 기억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좋은 '기도'의 사람, '관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슈발리에 신부님의 말씀 "어느 날 한 병사가 자신의 무분별함으로 하느님 사랑의 샘을 막으려 했지만...(MS 212), 그 병사는 예수님의 성심을 찢어 생명과 사랑의 샘을 다시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즉시 피와 물이 솟아났습니다(요한 19,34);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찬 경애하올 피, 순수하고 풍부한 물. 이 물은 영원한 생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예수 성심』, 83). 이 두 가지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내 삶이 관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은 사실이지만, 밤 10시 이후에 내가 밤을 어떻게 보내는지, 20년 동안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아침저녁으로 성전에서 보내는 긴 시간 동안 나를 움직이는 내면의 감정이 무엇인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줄 슈발리에, 1891년 1월 28일).

"선교사는 기도의 정신과 선한 삶의 모범에 있어서 투명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그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학문과 언변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는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고 그의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이며, 그의 선한 모범은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영혼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그 열매들을 받아들일게 할 것입니다" (줄 슈발리에, 1855).

"우리는 기도와 사도적 열정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형제자매들을 위해 자신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며,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의 참된 사도가 될 것입니다" (줄 슈발리에, 1900).





오늘 날을 위한 슈발리에 ...

우리는 오늘날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인공지능의 점진적인 발전에 직면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으면서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지만 교육은 부재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일치되지 못하고 친밀감도 대화도 없이 더 인간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친밀감과 온유한 말, 연민 안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의 깊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술에 의존하는 '섬처럼 고립된 사람들',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존재들이 되어 버립니다. 휴대폰의 친구이자 실존적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적, '스마트폰'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함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분은 전화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항상 우리 존재, 우리 자신에 가장 적합한 것과는 거리가 먼 기술에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나는 그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마음에 말하리라"(호세아 2:16).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과 일치되어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증언하는 선물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실존적 소통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이달의 기도 (예수성심찬미가 (Ave Admirabile)

예수성심
경배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당신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저희 마음을 드리나이다.
봉헌하나이다.
이 마음을 받으소서.
온전히 가지소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비추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그 안에 살으사
영원히 다스리소서.
아멘.

